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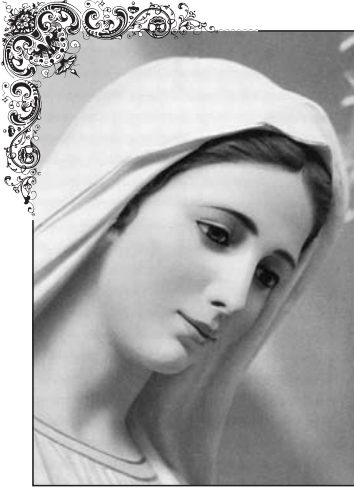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0, June / 제56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의 전구를 구하는 이 시기에,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더 내 메시지에 열고자
하는 너희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지
향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아드님 앞에서 너
희 각자를 위해 전구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0년 4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아드님을 성전에 바치신 마리아여,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 것만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도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시련 속에서 받는 은혜는 더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와 시련, 이 둘은 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고 일깨워 주려 하실 때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도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받으실 극심한 고통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그저 침묵하시고 말씀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성모님,
제 인생의 귀하고 값진 것은
모두 주님의 풍요한 축복의 선물임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에도
당신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침묵하며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성모님께 배우는 성체께 대한 사랑의 9일기도에서 발췌-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선교회 봉사자들과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믿음이 없는 저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과 아들을 도와주소서.
-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는 ○○○의 약물중독을 끊어주세요.
- 자꾸 유산이 됩니다. 귀여운 신생아를 허락해주소서.
- 남은 여성 근심 걱정없이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게하여 주소서.
- 성모님, 손자손녀들에게 성소의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고 지켜주소서.
- 성모님, 어머니에게서 두 딸들에게 빛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가도록 도와주세요.
- 4월5일에 돌아가신 유유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출산을 앞둔 ○○○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연옥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소서.
- ○○○가 어디에 있던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믿게 해 주십시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저희 가족에게 오랜 세월 기다린 영주권을 허락해 주세요
- ○○○의 마약 중독을 치유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봉헌미사드립니다.
- 성모님, 한국에 연고없이 혼자 있는 ○○○의 병을 낫게하여 주십시오.
- 동생들 가정의 화목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 조카가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전도사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 가족들이 어려움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평화주소서.
- 손자 손녀 에게 주님의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두 아들이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게 되길 기도합니다.
- 4월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시련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느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총주심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부부가 봉헌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 교통사고로 엄마와 동생을 잃고 불구의 몸이 된 ○○○의 영혼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소서.
- 미국에 있는 딸의 가정에 자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군입대하는 한요한, 수험생인 한아녜스를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 아이들이 도시생활에 잘 적응하고 제가 하느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 성모님, 가족이 걱정 근심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에게 치유를 베푸시며 주님 안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
- 5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2009년 5월 메주고리에 야고보 본당의 빠르만 신부 강론

존경하는 신자여러분과 순례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절대로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 대축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도들처럼 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9일 기도 중에 청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가득 들어오시어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볼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에페소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이나, 세상의 권력보다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어 당신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미천하고 용기가 없었던 나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시어 하늘나라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질만능이 판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권능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통해서 악마를 쫓아내고 병든 이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율법학자들 앞에서 병든 사람들,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힘은 오로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에도 서로 다른 언어권의 수많은 민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힘을 주시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야훼께서는 구리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세우면 모두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인이 몰타에 있을 때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치유된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는 위대한 표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몸에 독이 퍼졌을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기록된 죽은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 요한 복음사가는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즉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에 가득 차 계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순교하러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신가?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들 삶 안에서 찾아내고 전해야 합니다.

공산정권 시절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생각 없이 여기 저기 허공을 날아 다니는 우둔한 참새들처럼 허황된 생각만 한다고 마구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 세

상에 전할 때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 하느님의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도 성인은 기도의 힘으로 사람들을 쇄신시키고 유럽을 쇄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과 동굴에 작은 수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분처럼 우리도 곳곳에 평화의 하느님 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영웅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만든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반대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내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확고한 믿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는다면, 어느 한 순간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가 하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고급 차라고 해도 바퀴가 없어 달리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화부 장관으로 있었던 '무르'라는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의 모든 신들 혹은 이 시대의 모든 신들을 통털어서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도전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명예, 돈, 마약, 섹스와 알코올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어 밟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승천 대축일은 이미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지니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축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제발 나를 믿고 도와다오!

어떤 권력이나 무기를 이용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매스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속임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힘은 오로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 외에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자신들의 자유를 가둬 두고 있습니다. 그 힘이 사람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의견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사기가 또 사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크로아티아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이미 겪어 왔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공산 이념 쾌락주의, 소비주의, 문화주의, 문화우월주의 등등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산상설교의 덕목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죽어갑니다. 자유를 억압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정의와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복음을 통하여 해결책을 알려 주십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나 혹은 수난이나 고통의 해결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권력과 심지어는 사탄의 권력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게 때문에 그분의 창조물들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력과 권능을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멋진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만

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나의 권능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제발 나를 믿고 도와다오." 라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무릎 꿇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한곳에 모아 들이셔서 함께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갈 때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헝가리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 한 순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19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수난 역사는 지금도 매초마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M**





너희의 침묵

84. 1975년 10월 24일

내가 여러번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너는 고통과 몰이해를 겪게 되겠지만, 절대로 방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 다른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내 천사들은 이미 전투를 개시했다. 나의 명령에 따라 세계 전역에서 내게 소속될 아들들을 모아들이고 있다. 내 성심은 그들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 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의 "예" 라는 대답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는 너무 작고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 과거의 술한 불충실과 나약을 자인하면서, 첫 걸음을 내디딜 결단을 선포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내게 "예" 라고 하면 내 성심은 기쁨으로 설렌다. 이제 그 "예" 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라. 그것이 티없는 내 성심이 받은 기쁨의 수효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만, 너희 자신의 완전한 봉헌이다. 한계가 있고, 약하고, 무능한 그대로의 너희 자신이다. 그것이 내 계획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내 운동에 대해 법적인 조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운동이 침묵 속에서 은밀하게 전파 되도록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신뢰와 맡김 다음에 너희가 사용해야 할 두 번째 무기는 너희의 기도, 너희의 침묵이다.

내적 침묵: 너희 엄마가 너희 안에서 말하도록 해다오. 이 엄마가 어린이 같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 전체를 반복해서 조용하게 들려주고, 그 말씀의 맛을 다시 선물하겠다. 다른 어떤 음성, 어떤 말에도 귀기울이지 말

아라. 오로지 그분 말씀에만 굽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느님 말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외적 침묵: 너희 엄마가 너희를 통해서 말하도록 해다오. 내가 너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너희가 맡겨준다면, 참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내가 말하려면 너희의 침묵이 필요하다. 너희 중의 어떤 이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침묵은 너희 자신의 말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점이다. 너희 중의 또 어떤 이들은 내 운동을 위해 움직이며 글도 쓰고 활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티없는 내 성심이 이미 명확하게 설계해 둔 계획대로, 이 운동의 전파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침묵이다.

언제나 너희의 삶으로 말하여라. 너희 삶이 너희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말하게 되고, 그럴 때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을 이해하며 받아들여게 된다. 오늘날에는 온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 내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침묵으로 그와 맞서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며, 너희를 통해 그분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고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평화와 정의의 새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리니...

지극히 고통스러운 수난과 찬란한 부활

내 아들 신부여, 쓰시오. 나는 비오 신부라오. (1887-1968 ;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 피에트랄치나에서 태어남. 50년 동안 예수님의 오상을 지니고 있었던 카푸친회 사제. 현재도 전 세계에 수 많은 영적 아들과 딸들이 있으며 '파드레 비오 기도모임'을 하고 있음 - 역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여,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세상에 있을 때에 이미 교회 생활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소. 교회의 고난은 벌써 시작되었거니와, 교회가 갈바리아를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갈수록 더 깊이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고, 유다와 같은 자들과 그 배반의 결과들, 교회의 순교자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땅을 흠뻑 적시는 피를 보았소. 그러나 나는 또한 생명의 수액을 빨아 당겨 붓긋붓긋 움트는 새싹들을 보았고, 교회에 다가올 봄의 여명도 보았소. 교회의 극심한 수난과 그 찬란한 부활을 본 것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 내 아들 옷타비오 신부를 보기도 하였소. 그렇소, 그대가 십자가를 지고 '어린양'을 따라 갈바리아를 올라가는 모습이었

소. 또한 목자들과 상당수의 사제들이 제쳐 놓은 사목의 중심 문제를 교회에 전하는 동안 그대가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보았소. 그 주교들과 사제들은 정체 불명의 개혁이나 공의회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곧 '성서'와 '복음'과 '전승'을 뜯어고치고 다시 만들 작정을 하느라고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제쳐 놓고 있었소. 그리하여 갈수록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은 사실상 거부하고 부인하는 판이었소. 하느님의, '교리'와 '윤리'를 뜯어고치려 들다니, 그것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극에 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내 아들 신부여, 물론 교회는 과거에도 이 세기의 주제넘은 술한 신학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자들은 여러 시대 속에 걸쳐서 교회라는 무대에 나타나곤 하였소. 그런데 같은 한 세기 속에 이토록 많은 수로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고, '계시' 전체와 하느님의 '법'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그대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대로, '선'과 '악',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잃고 말았소.

내 아들 사제여, 그분께서 그대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오.
내 아들 사제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오.



원수가 이길 수는 없으리라

내 아들 신부여, 사탄이 교회와 세상을 물질주의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고 있소? 수천 년 동안이오. 하지만 이 마지막 두 세기 동안, 그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이 물질적인 진보를 이용하여 그 과정에 박차를 가해 왔소. 진보로 말미암아 인류와 교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을 수단으로 동원하여 교회 파괴의 음험한 계획을 가속화시켜 온 것이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므로, 구세주께서 인류 한가운데에 '구원의 성사'로써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도 미워했다고 할 수 있소.

그러나 이 사나운 원수는 하느님의 업적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목적 중 일부만 성취할 수 있었소. 하느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이는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가 이길 수 없음을 뜻하오. 그러나 그가 영혼들에게 끼친 손상은 분명 헤아릴 수 없도록 많고, 인간 정신의 이해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이오.

그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하여 새삼 거론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이오. 내 아들 옷타비오 신부여, 그 대답을 그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았소? 그대는 교회 활동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할 참된 '사목'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기 위하여 하느님 섭리의 도구로 뽑혔으니 말이오. 과연 사목이

'믿음'과 '윤리'의 굳건하고 영구적인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어떤 쇠신이나 개혁도 불가능하지 않겠소?

벌써 불기 시작한 정화의 바람

내 아들 옷타비오 신부여, 하느님 앞에서는 수천 년도 금방 사라지는 한순간만 못하고, 교회의 현재 상황도 흐릿고 안개 낀 어느 늦가을날의 정경과 유사할 따름이오. 공기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빈발하고 불안이 감도는 날 말이오. 바람이 일어 그 짙고 음산한 안개를 휩쓸어 가면, 다시 태양이 빛나면서, 지치고 실망한 영혼들에게 새로이 자신감을 주는 것이오……

벌써 정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하늘은 이제 갈수록 더 짙어지는 구름으로 덮일 것이고, 이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일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원수'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희망을 들부수고 말 것이오. 그런 후 평화와 정의의 새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리니, 이는 일찍이 본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새로운 빛으로 땅을 비추어 줄 태양이오. 이 태양의 열기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오…… .

내 아들 사제여, 그분께서 그대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오. 내 아들 사제여,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오. 그리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라가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강복하시고, 그분의 원수요 사람들의 원수인 자들의 공격에서 오늘과 또 영원히 그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M**

(1978년 6월 16일)





마리아의 신심은 완덕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더 높은 완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마리아와 친밀히 일치하고 마리아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의 긴밀한 일치와 성령께 대한 완전한 순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다. 그 후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이미 은총을 가득히 입고 계셨고 또 성령께서 마리아를 신비롭게 감싸셨을 때에도 마리아께서는 은총으로 충만하셨다. 또 마리아의 이 은총은 시시각각으로 나날이 증가하여 이 한없이 큰 은총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당신 보고(寶庫)의 관리자 및 은총의 유일한 분배자로 삼으셔서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을 고귀하게 하고 들어 높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고,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을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이끄시며,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에게 왕좌와 왕홀과 왕관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의 열매이고 아들이시며,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낳으시는 참된 어머니이다.

하느님께서 오직 마리아에게만 당신 사랑의 보고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고, 오직 마리아에게만 가장 숭고하고 신비스런 완덕의 길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들

어가게 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낙원으로 불러들여 거기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할 염려없이 생명의 나무 열매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고, 하늘 나라의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도 마리아 한 분뿐이다. 아니 마리아 자신이 바로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낙원의 땅인 에덴 동산이므로 마리아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당신(낙원)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성 베르나르도는 성령의 감도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이들은 세세대대로, 특히 세상 끝날 때에 마리아의 얼굴에 대고 애원할 것이다. 그때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은총과 덕행이 가장 충만한 영혼들은 마리아에게 끈기있게 간청하며, 자신들이 본받을 완전한 모범으로서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협조자로서 마리아를 늘 곁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마리아는 종말에 나타날 위대한 성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나는 이 일들이 특히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멀지 않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드랑띠 신부가 쓴 전기에서 어느 한 영혼에게 이미 계시된 것처럼, 하느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 작은 관목들을 능가하는 레바논의 삼목처럼 성덕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을 훨씬 능가할 큰 성인들을 키우실 것이기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때문이다.

은총과 열성으로 가득 찬 이 위대한 영혼들은 사방에서 미쳐 날뛰는 하느님의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 선택된 이들이다. 이들은 특히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마리아께 봉헌되어 마리아의 빛을 받고 그분의 자양분으로 키워지고, 그분의 정신으로 인도되며, 그분의 팔로 부축되어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싸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건설할 것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이단자들과 이단들, 이교도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교론,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우상론을, 죄인들과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을 으스스하고 없애 버릴 것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참된 솔로몬의 성전과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마리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교부들은 마리아를 "솔로몬의 성전" 또는 "하느님의 도시" 라고 부르고 있다. 성인들은 말과 표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대항하며 몰려올 것이지만 한편 하느님만을 위한 많은 승리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빈첸시오 페리에 성인(1350~1419)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성인은 그 사실을 자신의 저서에서 세밀히 기록하였다.

이것은 시편 59장에서 성령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이가 하느님이심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 대며 성 안을 여기 저기 쏘다닙니다."(시편 59:13-14) 세상 끝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회개시키고 정의에 주린 이들을 채워 줄 도시를 발견할 것인데 그 도시는 다름 아닌 성령에 의해 "하느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다.

세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적인 역할

인류 구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



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류가 마리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분별없이 집착하여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느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 마리아를 알고 있었더라면, 지존하신 분께서 친히 부여하신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집착할 우려가 많았다. 사실 아레오파고의 재판관인 디오니시오는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신비스러운 매력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자신의 참된 길을 신앙이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한 여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마리아도 정배인 성령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제 성령께서도 당신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복음 전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2010년 4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의 전구를 구하는 이 시기에,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내 메시지에 열고자 하는 너희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지향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아드님 앞에서 너희 각자를 위해 전구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의 전구를 구하는 이 시기에,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내 메시지에 열고자 하는 너희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특별한 맛을 만들어 냅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도 방법은 매일, 마

음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너희의 하루를 짧고 열렬한 기도로 가득 채워라." (2005년 7월 25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일상의 중간 중간 기도하며 그날 전체를 기도의 분위기로 가득하게 만들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인들은 일상적인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입으로 기도하되 늘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바치는 기도는 절대 특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언제나 특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특별하게 되려면 공동



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 19-2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모아 함께 바치는 공동체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갈릴래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없는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 늘 전구를 부탁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해 전구하고 중재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성모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구원과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것처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은 성모님의 전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내 메시지에 열고자 하는 너희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지향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아드님 앞에서 너희 각자를 위해 전구한다. 나의 부

나의 지향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지향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지향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의 회개와 구원, 교회의 쇄신,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화, 가정의 성화 등이 아닐까요? 성모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느님의 평화와 구원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하느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향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향들보다 그분의 지향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향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할 때, 이미 그분은 우리 각자의 지향들을 위해 예수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한 저희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머니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희가 드리는 모든 청을 들어 허락하소서.

성모님, 언제나 주 예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전구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는 저희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모님, 저희 마음을 다해 기도하오니 당신의 모든 지향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그대는 ...



그대는 사람들의 이런 저런 성격과 부딪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교제할 때 그런 마찰이 없다면

날카롭고 모난 그대의 불완전함과 결점들이 어떻게 깎일 수 있겠으며,

또 질서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과 완덕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대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대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금빛 풍향계가 되려고 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반짝인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해도,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 토대 밑에 숨겨진 주춧돌이 되기를.

바로 그대 덕분에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해도 그대는 잘 했습니다.

그대는 겸손했고 올바른 마음으로 했으며 희망을 가득 품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희망이 그대를 다시 하느님의 사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놀라서 그렇게 얼빠진 얼굴을 할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일어나라.(Surge.)"

"그리고 걸으라!(er ambula!)"

이제 일하러 갑시다

그대는 덕이 모자랍니다.

모든 일에 참견하려는 그 조바심이란

그대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되려고 기를 씁니다.

게다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간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소금이 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대는 소금처럼 녹아서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질 줄 모릅니다.

그대는 희생 정신이 모자란 반면 호기심과 과시의 기운은 그득합니다

비판하는 것,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단 석공도 대성당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돌에 연장을 대고 구멍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거장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명랑하게 미소 짓는것,
 재치 없고 거북한 사람이란 걸 알고도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
 함께 사는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을 매일 봐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끈기 있게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단단한 내적 금욕입니다

정말로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매 순간의 작은 의무들을 실천 하십시오,
 즉 할 일을 다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그대는 호기심이 많고 캐묻기를 좋아해서 무엇이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참견하는 대신

그대 자신이 정말 누군지를 알려고 애쓰십시오.

"당신의 열망, 당신의 일, 당신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십시오.

하느님과 모든 이를 섬기면서 우리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곳은
 온갖 물질적 유혹으로 넘쳐나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하늘과 땅이 지평선에서 서로 맞닿는 듯 보이지만

진정 하늘과 땅이 만나 일치를 이루는 것은

당신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해 질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입니다."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인의 강론 「세상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자」 중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성지 순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지도 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순례단장 : 남 그레고리오

문 의 : 610-366-9612

신청마감 : 2010년 8월 30일

1차 : 2010년 10월 3일~15일 (12박 13일)

\$3,150 (JFK공항 출발)

로마, 아씨시, 산 조반니 로톤도, 몬테카지노,
 교황님일반 알현참석,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2차 : 2010년 10월 7일 ~ 15일 (8박 9일)

\$2,290 (EWR 공항 출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

순례지
 이태라 : 성 바오로 대성당, 성바오로 치명터,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성모마리아 대성당, 순교자들의 무덤 카타콤바,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기념성당과 무덤,
 생가성당, 성 글라라 기념성당, 천사들의 모후 성모마리아성당, 포르찌운플라 로레또순례, 성체 성혈 기적의 성당 란치아노, 성 분도성인의 수비아코, 거룩한 동굴 방문,
 메주고리에 : 발현산, 십자가산, 청 십자가, 부활 청동산, 평화의 오아시스 수녀원, 티할리나 성모님방문, 슬라브코 신부님 묘소 참배, 어머니 마을, 기도로 치유되는
 천 마약 중독자들의 체나콜로공동체, 야고보 성당의 은혜로운 묵주기도와 미사 및 치유의 저녁 예절, 성시간, 십자가 경배,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안에 있는 성지들과 1700년전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그 신부님도 정치범이셨나요?

요조신부 : 정치범으로 12년 형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 회교도 운전기사와 함께 보스니아를 지나갈 때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곳은 터키 식민지 당시 이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등등" 그런데 재판 증인으로 나온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민족주의자처럼 떠들었습니다." 페르도 신부님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 교수님도 공산정권에 의해 조작된 재판에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이태리어를 가르쳐 주려고 부인에게 이태리어 교과서를 부탁했는데 그 책은 수많은 검열을 받은 후 몇 달 만에야 받았습시다. 그런데 제가 출옥한 뒤 처음 만난 순례자들이 이태리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창한 이태리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서 힘들 때는 이태리어가 능숙한 토미슬라브 신부님을

생각했었지요. 신학자이신 그분은 이태리어가 능숙했지만 저는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그물 같이 영성한 이태리어를 했답니다. 다행히 티할리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분들에게 언어 교정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시다.

질문 : 다른 외국어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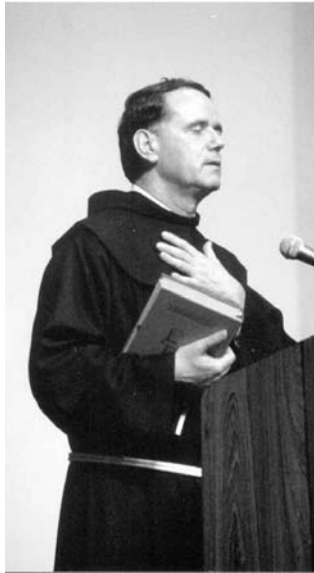
요조신부 : 신학교 때 배운 독일어와 프랑스어입니다. 교도소에 함께 있던 동료가 제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지만 그때는 교재가 없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질문 : 신부님이 교도소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보셨다고 일곱 번째 발현증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엘레나와 마리아나처럼 내적으로 느끼신 것인지요?

요조신부 : 그 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능력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당 사제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 사람은 아무것이나 쉽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봉헌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다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마르코 13,21) 라는 성경 말씀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현초기에 메주고리예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발현 언덕에는 수천 명이 올라가 있었지만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 저기, 감실에 계시잖아!" 하며 사람들이 성당으로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가요.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웃더군요.



질문 : 공산정부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 오히려 신부님을 도와 드린 격이 됐군요?

요조신부 :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성당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 년 365일 매일 성당에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추운 날씨인데도 성당 밖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요조신부 : 추운 날에 사람들이 성당 밖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운 날에는 사람들이 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성당에 옆문 두 개를 더 만들자고 했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땀 흘리는 희생을 한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느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들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봉헌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산당원들이 발현언덕과 십자가 산을 봉쇄했을 때, 동정녀께서는 단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식은 우리 마음과 몸의 새로운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육구의 절제를 통하여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교회는 음식을 절제하는 단식을 다른 희생들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마는 교활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단식을 청하셨고 신자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방해로 하면 할수

록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모든 방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넘어야 하는 시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식은 동정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모님께서서는 매달의 고해성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단식을 끝낸 뒤 고해성사를 보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자들 속에 있는 신부님들, 평복을 입은 신부님들, 제가 속해 있는 후마치 수도원 동료 사제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부님들께서 메주고리예에 머무시면서 성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시작되었던 그날의 고해성사는 오늘날도 매일 집전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질문 : 카리스마 단체들을 이끄시는 신부님들 외에 안수기도를 하시는 신부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시작하셨는지요?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요조신부 : 성모님께서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병든 어린아이를 위해 미사전례 기도에서 병든 엄마를 위한 기도, 또 다른 기도등을 찾아 했지만 영혼을 적시는 기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오 10,8) 저는 이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안식"을 누리신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의 안식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껴질 때는 꺾가에 대고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줍니다. 불행하게도 축복 받을 준비가 안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멍하게...깨어나지 못하고 돌

처럼 굳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가득 내려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와 두 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 평소에 그 남편은 가족들을 괴롭히고 심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식들은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그 원인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 속에는 증오가 가득하군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자매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죽어도 용서못해요! 신부님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계시는군요!" 이런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식들을 노예취급하니까 아이들이 불행했었다고 자매에게 말한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바랍니까? 먼저 용서한 뒤 기도하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있어요. 자매님의 삶은 증오로 가득해서 자식들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자 세 명의 가족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의사나 정신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해의 원인은 그 자매가 증오심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오의 벽이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자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증오심은 강력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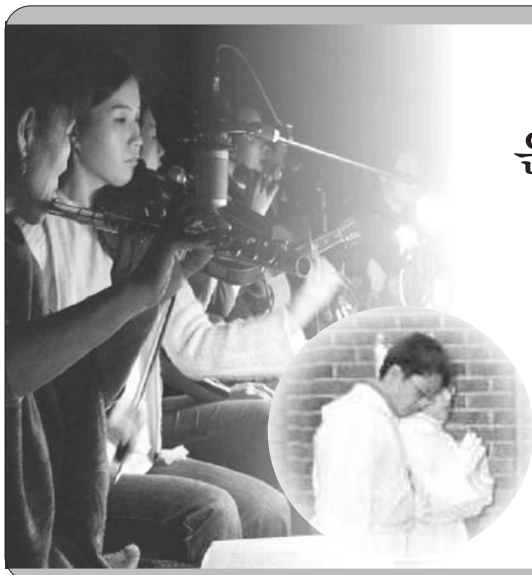
괴력이 있습니다. 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증오입니다.

질문 : 어려운 일이네요.

요조신부 :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까... 주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아예 담을 쌓고 있는 사람, 어둠을 택하고 증오라는 벽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 측은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제 영혼과 마음이 짓누려지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해방되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빛을 찾은 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질문 :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기적보다 이런 기적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요조신부 : 당연합니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특히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성숙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한거지 증오심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십자가는 희망을 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M**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 e-mail : qpmmk@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발현 목격증인 이반과 성모님의 첫 만남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는 강연 중 29년 전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발현하셨던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날은 1981년 6월 24일 수요일 세례자 요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저희가 어느 공휴일처럼 미사에 늦지 않을 만큼 조금 더 늦잠을 자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늦잠 자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저희 부모님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제 방으로 오셔서 이미 미사에 늦었으니 빨리 일어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겠지요?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두 동생을 깨워 부모님과 함께 성당으로 가서 오전 11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몸은 성당에 있었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미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늘 다음과 같이 묻곤 하셨습니다. "이반, 오늘 미사의 복음은 어떤 복음사가가 쓴 것이었니?" 성당 안에 있는 동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 마을 친구 몇 명이

찾아와서 함께 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보통 주일이나 공휴일에 저희는 모여서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들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축구는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모두 지친 몸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는 길에서 세 명의 여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반카, 미리야나 그리고 비츠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중에서 비츠카와는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여자 아이들은 그 당시 메주고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 몇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뭘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은 잠깐 걷고 나서 부모님의 양 떼를 돌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줍음을 많이 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자 아이들과 대화를 마친 후, 다른 친구들은 마을로 직접 갔지만, 저희 집은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고 친구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농구 경기를 볼 참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만 해도 마을 전체를 통틀어 다섯 혹은 여섯 가구 정도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호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 집으로 가서 농구 경기 전반전을 지켜봤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저는 친구에게 뭘 좀 먹고 싶으니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고, 돌아와서 후반전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후반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반, 이반, 이반, 와서 성모님을 봐. 그분께서 언덕 위에 계셔."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와 가시덤불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자, 저희는 그 목소리를 더욱 더 크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돌아섰을 때, 그 세 명의 여자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인 비즈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맨발로 저희 두 사람에게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저희를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성모님께서 언덕 위에 계셔."

저는 그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비즈카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서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무슨 부인이라고? 재한테 신경 쓰지마. 재 미쳤거든." 그러나 그때 저희는 범상치 않은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뭔가가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그 아이와 함께 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와 함께 걸으면서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 주시했습니다. 갑자기, 저희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역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다른 두 여자 아이, 이반카와 미리아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쪽을 쳐다보면서 뭇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가갔을 때, 그 여자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비즈카가 언덕 쪽으로 몸을 틀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저는 세 번씩이나 아름다운 모습의 성모님을 봤습니다. 한 5초 정도나 그분을 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뵈었을 때, 저는 바로 집 쪽으로 달음질했습니다. 제가 하도 빨리 뛰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날 밤, 제 마음은 두려움과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분이 정말 성모님이셨나?' 그분을 뵈기는 했지만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16살이었던 당시,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진짜 발현하실 거라고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 들은 바도 없었고 책으로 읽어 본 적도 없구요. 저는 파티마나 루르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성모님께 특별한 어떤 신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당에 가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으며 신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제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낫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 밤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대로 가득했던 밤이구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내 방으로 오신다면, 내가 숨을 곳은 어디지? 어디로 도망치나?" 그날 밤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 방문 앞에 진을 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아시겠지요?

1980년대초 공산 정권 치하에서 사람들은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단단히 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의를 주시며 또한 저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님들께 저희가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그분을 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습니다. 저희는 그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경찰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들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함께 언덕으로 가지 않는 거니? 아마 성모님께서 어떤 표징을 남겨 주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 그분께서 그곳에서 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 즉시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언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 어림잡아 20미터 정도 앞에서, 성모님께서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구름 위에 떠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미



소를 지으시며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저희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제가 결코 절대로 잊지 못할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지금도 제게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때 저는 움직이지도,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저희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이끌려 돌과 가시덤불을 밟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분 앞에 가까이 무릎을 꿇었고 압도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흥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고, 당신의 오른 손을 저희 머리 위에 올려 놓으신 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저희가 그 모든 감정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가운데 가장 침착해 보였던 비츠카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내 아드님께서 너희를 돕도록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찾아온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상과 인류는 중대한 위함에 처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모님께서 저희를 통해 세상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M**



〈<http://www.medjugorje-online.com> 에서 발췌 번역〉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발현 목격자 비츠카(5)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역자 : 신경남 신부

질문 : 성모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삶을 바꾸고, 기도하고 단식하며, 자신과 세상의 회개를 위해 삶을 바치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질문 : 우리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비츠카 :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에 대한 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 : 연옥은 어땠습니까? 지옥에 가까웠습니까?

비츠카 : 처음에 천국,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이 있습니다. 연옥도 매우 거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사람은 보지 못했고, 안개와 회색 연기만 보았습니다. 마치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흐느끼고 신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사람들은 너희의 기도

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문 : 이반이 순례자들에게 말하기를, 연옥 영혼들은 몹시 외롭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뿐이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비츠카 : 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질문 : 비츠카,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츠카 :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것이 연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츠카 :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사후에 연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비츠카 :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은 비츠카가 병으로 고통 받을 때 질문한 것이다.]

질문 : 비츠카, 성모님께서 고통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츠카 : 저는 고통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병이나 다른 형태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실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이 특별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왜 각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하느님의 별로 알아듣지 않고 사랑의 선물로 이해합니다. 고통이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열매는 기쁨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질문 : 고통을 괴롭게 받아들이면, 많이 고통스럽겠군요?

비츠카 : 맞습니다.

질문 : 지금 몸이 아픈니까?

비츠카 :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질문 : 왜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저를 데려가신 후에 제가 고통을 겪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연옥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숨짓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왜 저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인지 여쭙 봤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세상에는 연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종교가 많지만, 연옥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혼자이며, 세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제가 이 버림받은 영혼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고통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왜 접니까?"라고 여쭙 봐서는 안됩니다. 그분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당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가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런 책임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성모님께서서는 제 희생을 받아들이셨고, 저는 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질문 : 매일 고통스럽습니까?

비츠카 :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때때로 며칠 동안 저에게 오지 않으셨는데, 그분께서 오지 않으실 때면 아프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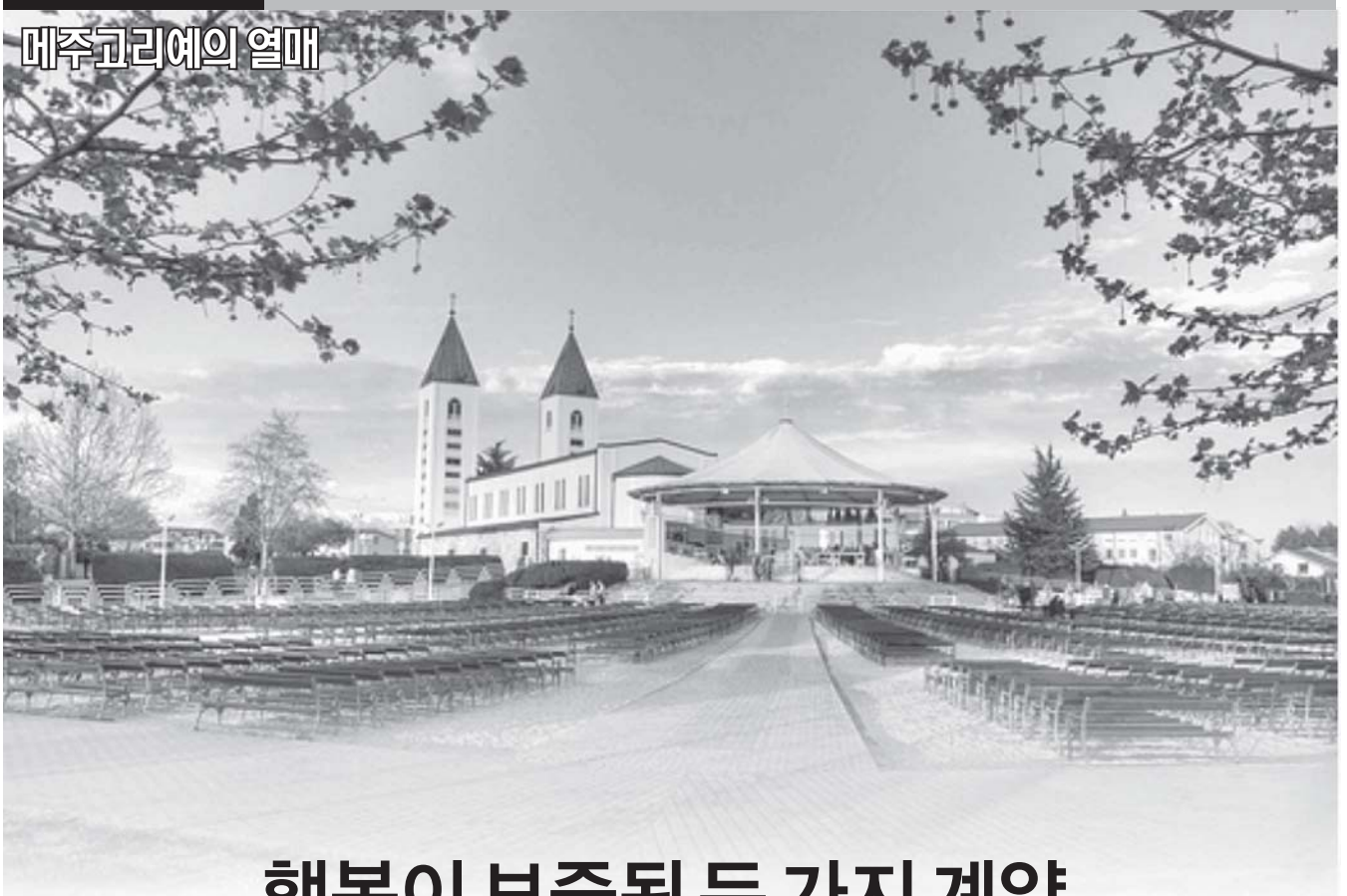
질문 : 그럼 성모님을 뵈 때는 아프다는 말입니까?

비츠카 :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다른 시간 구조 속에 있습니다.

질문 :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비츠카 :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왜 접니까?"라고 여쭙 봐서는 안됩니다. 그분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를 기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느님께 충실함으로써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더 있는지 여쭙 봐야 합니다. **M**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 체험담인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행복이 보증된 두 가지 계약

엘레나 바실은 로마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의 안젤리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녀의 깊고 지혜로운 말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깊은 인상을 준다. "성모님께서서는 내적인 대화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행동에도 함께 계시고 물질적인 것이나 정말로 무의미해 보이는 사소한 일에도 그곳에 계십니다. 매 분 매 초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배당한다든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표를 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시간을 특별히 바쳐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늘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하고도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며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지를 안다면 그분의

현존하심을 인식하는 시간이 아주 순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겨우 25살에 불과한 엘레나는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충실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지.. 독신으로 살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항상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모든 여성에게 모성애를 선물로 주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모성애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모성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동료들에게도 영적으로 모성애를 실천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성애의 부족으로 영적으로 죽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충실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 그 이상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또 다른 방법의 '하느님과의 계약' 때문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목격 증인 마리아의 집 마당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통역을 맡은 케이트조차도 마리아의 곁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군중들을 둘러보던 케이트는 어떤 얼굴을 보고 그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 얼굴은 마치 안개 속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케이트는 그토록 밝고 환한 기쁨에 찬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녀는 통역 하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겸손한 태도로 담벼락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남자는 마리아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여든 수 많은 순례자들 중의 한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마리아의 강연이 끝나자 케이트는 빛나는 얼굴의 그 순례자에게로 갔다.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인 그의 외모는 참으로 작고 볼품없는 체구의 사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 어찌나 늙어 보이는지 마치 100년은 산 사람 같았다.

케이트가 물었다. "신부님, 죄송하지만 꼭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통역을 할 때 본 신부님 얼굴이 어찌나 밝고 기쁨에 차 있는지 예사롭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신부님의 빛나는 눈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깃들여 있었다. "네, 기꺼

이 말하지요. 나는 지금 95살입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며 그 이유를 끝없이 찾아내곤 하였지요. 어린 저에게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충격적이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처럼 슬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졌지요. 나는 앞으로 100년간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찬미하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수 십년이 지난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내가 생명을 찬미하며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악령들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했으며 나는 모든 유혹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케이트가 미소를 머금고 탄성을 질렀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부님의 연세가 95세이니 곧 계약이 끝나가겠군요"

"네, 어느 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네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나는 앞으로 100년 간 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M**

(『메주고리예의 기적 / Medjugorije,90』에서 발췌)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마리아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고, 영적인 방문을 위해 길을 떠나도록,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은총을 가득히 받아라. 너희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을 갈망하여라.
또한 아직도 선의 완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선을 갈망하여라.
너희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고맙다."

2010년 5월 2일



평화가 함께 하는 믿음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메주고리에 52차 순례를 함께 했던 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동안 모두 안녕 하셨는지요? 지금도 순례단 가족분들과 함께했던 메주고리에의 아름답고 은혜롭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메주고리에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모습, 맑은 산촌의 공기, 아침마다 지저귀던 새소리, 푸른 하늘과 바람, 맛있는 음식..이 모든 모습이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메주고리를 찾은 모든 순례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묵주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메주고리에는 천상이 땅에 내려와 있는 곳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묵주기도를 인도하시던 젊은 프란치스칸 신부님(부제님 이셨나요?).. 영화배우처럼 잘 생기신 외모에 목소리도 좋으셨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하느님께 헌신하는

수도자의 길을 택하신 것은 대단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혼자 상상해봅니다.^^ 저도 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름다운 미사가 끝난 후 성시간 때에는 각 나라 언어로 돌아가며 들려주시던 말씀들도 떠오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었는데요, 첫날이었나? 잠시 주위를 돌아봤더니 십대로 보이는 소녀들이 모두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처음에는 무릎이 무척 아팠지만 얼마 후에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어린 소녀들이 보여 준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리처드와 안젤라가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어린 나이에 이 거룩한 땅에 부르신 성모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순례단의 일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엄청난 주님의 은총으로 느껴졌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천상이 땅에 내려와 있는 곳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시골 마을이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경건하게 기도하며 열의에 찬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은 제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모두 깊은 평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새 제 자신도 그 평화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목격증인들의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에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참으로 '평화의 여왕'이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목격증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오해와 시련을 거치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켜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평화'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가 함께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가지 시련속에서 영적으로 지쳐 힘들고 불안했던 저의 믿음에도 어느새 기쁨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가득한

평화를 느끼면서 '바로 이것이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나라의 은총이구나!' 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메주고리로 불러주신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일정 내내 순례자들과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모님같이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돌보아주시고 자상하게 챙겨주신 그레고리오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나눔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기억들을 함께 갖도록 해주신 52차 순례단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성모님의 보호 아래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도 늘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M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형제 프란치스코 올림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야, 나도 성당에 갈란다.

어느 본당 선교 분과장의 개종기

이 편지는 실제 있었던 체험담으로써 형제님의 실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대구 교구 00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000입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대구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일 년 신수를 보고, 일년에 한두 번 집안 안택굿을 할 때면 온 동네가 북새통이 됐고, 일 년 내내 번 돈을 몽땅 쓸어 넣곤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당 생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을 피하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 공부하는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해 과학 교사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알까 봐 가슴 조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당을 그만 두라고 사정했으나, 어머니는 오랫동안 섬기던 신을 배반하면 집안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아지자 여동생이 또 어머니 대를 이어 신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로 가슴에 한이 맺힌 저는 여동생이 어머니 대를 이어 또 무당이 되려는 줄 알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한 친구가 미신을 없애고 마귀를 쫓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솔깃해서 어머니에게 성당에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헛말이라도 그런 소리 입에 담지 말라 하시고, 절대로 성당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내가 당한 고통을 내 아들딸에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한결 같이 천주교 입교를 권유해 온 동료 교사 유 베드로를 따라서, 00성당에서 어머니 몰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 후 혹시 집안에 어머니 말대로 우환이나 있으면 어찌나……, 솔직히 겁이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성물들을 문갑에 숨겨 두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의료 보험증을 찾던 어머니에게 들켜 버렸습니다. 아들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무척 실망하여 말도 하지 않고, 식사도 거르고 두문불출했습니다. 힘없이 쳐져 있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세례를 받아 어머니께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대구 남산동에 있는 성모상 앞에 가서 매일 새벽 묵주기도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기도하고, 새벽미사에 참례한 뒤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 온몸이 가려운 병이 생겼습니다. 긁고 또 긁어 상처가 덧나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병원의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묵주기도 중에 성수가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니, 자꾸 그 생각에 집착되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하는 길로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서 본당에 있는 성수를 한 병 떠다가, 감실



앞에 놓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피부병 특효약을 가져왔다고 하니, 어머니는 "어서 발라 보라." 하시면서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탈지면에 흠뻑 묻힌 성수를 어머니 몸에 갖다 대자 깜짝 놀라며, "아이고, 뜨거워라!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 쫓느냐! 이 집에 성신(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오갈 데가 없더니, 네가 나를 기어이 이렇게 쫓는단 말이냐!" 하고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사건에 너무나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영겁결에 아내와 교리 중인 아들딸들을 방으로 불러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신비 3단계, 내 몸이 불같이 타오르고 신비한 힘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마귀를 쫓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큰 소리로 영광의 신비 5단을 다 바치고 나니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평소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뭘 발라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시기에,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과연 성신이 있구나! 내가 40년 무당을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야, 나도 성당에 갈란다." 하셨습니다. 영세 받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저에게 무슨 마귀 쫓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저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성당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머니께서 스스로 성당에 가시겠다고 하니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00성당 후반기 교리반에 입교하시어 교리를 공부하시던 중 몸이 몹시 편찮으셔서, 교리 도중에 세례를 받고 40년 마귀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병 온 신자들과 같이 목주기도를 바치다가 홀연히 선종하셨으니, 영세 후 사흘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하느님이 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된 저는, 그해 우리 전 가족과 여동생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척을 권면해서 2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던 우리 집안에 일대 종교 혁명이

"과연 성신이 있구나! 내가 40년 무당을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야, 나도 성당에 갈란다."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집안에 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던 모든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친구나 제자들이 알까 봐 가슴 조이던 40년 세월이 저에게는 시련과 단련을 위한 은총의 시기였고, 이제는 어머니 일을 온 세상에 알리어 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니, 암흑의 시대는 지나고 광명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알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자,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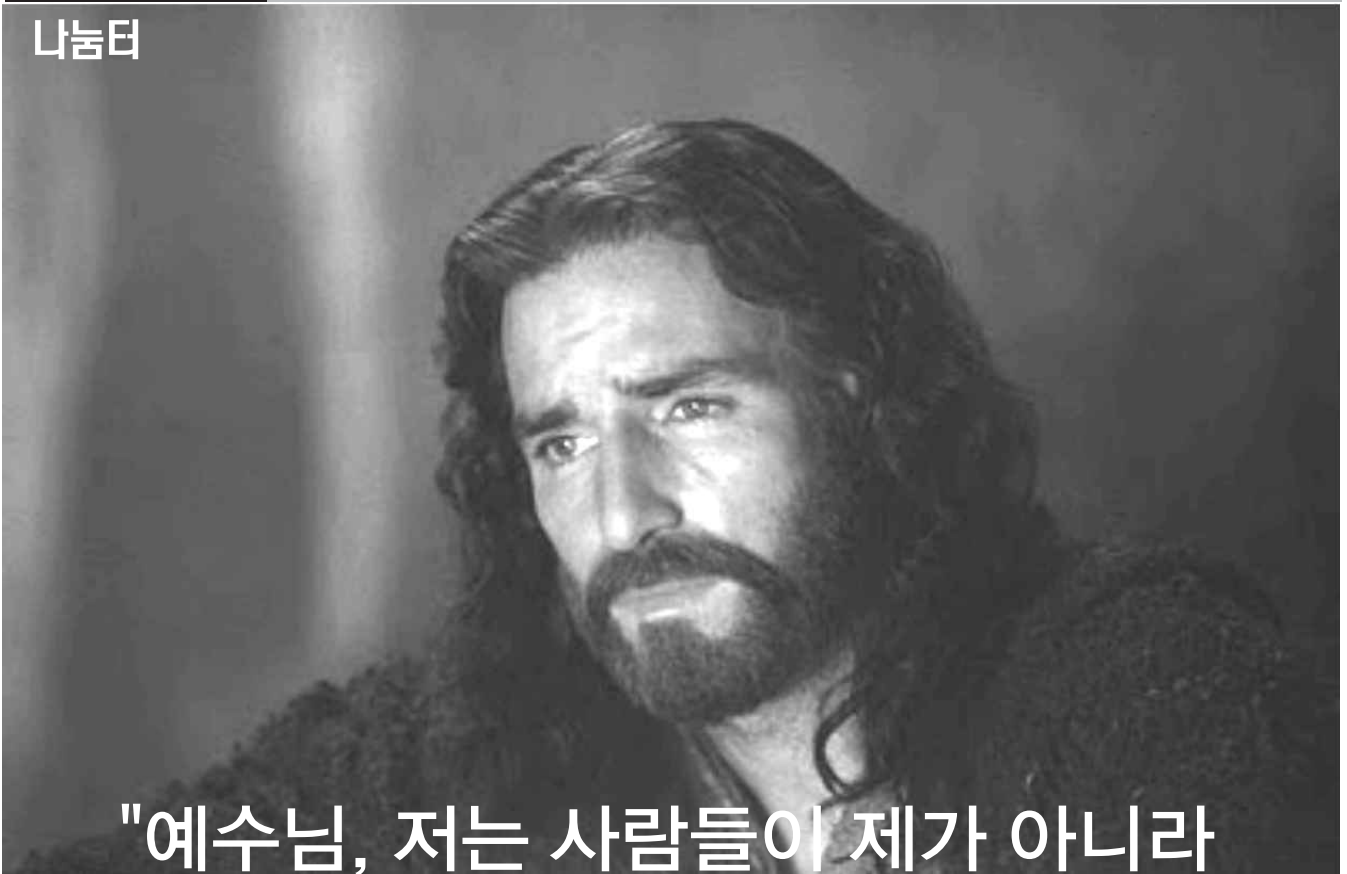
지난해 00분당 선교 분과장으로 우리 본당의 냉담자를 일제히 조사해 756세대 1200명에게 성사 권유를 했습니다. 이 결과 냉담자 250명이 성사를 보았고, 올해에도 전반기에 83명이 성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의 도구로 써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

<http://cafe.naver.com/holyvatican.cafe>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항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최윤비, 이연숙, 김성주,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사



"예수님, 저는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당신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메주고리에 때문에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캐비젤

지난 2월 제임스 캐비젤은 여섯 번째 메주고리에 순례를 한 후, 비엔나에서 잡지 〈Oase des Fridens 평화의 오아시스〉 크리스티안 쉬타이저와 대담을 가졌다. 이 대담은 메주고리에 본당 잡지인 〈Glasnik mira〉 최근 호에 크로아티아어로 게재되었다.

질문 : 제임스, 메주고리에에 관해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제임스 : 제가 아일랜드에서 영화 '몬테 크리스토'를 찍고 있을 때, 아내가 메주고리에를 갔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영화를 찍고 있었지만,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메주고리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발현 목격증인 한 사람이 곧 아일랜드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 무슨 발현 목격증인이든, 그 어

떤 일이든 난 거기에 갈 수 없다구." 게다가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루르드나 파티마 혹은 메주고리에를 꼭 받아들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가톨릭 학교에서 한 번은 메주고리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분에 넘쳤지만, 지역 교구 주교가 성모님 발현의 진실을 믿지 않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내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가 아일랜드에 왔고, 저는 늘 일해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를 만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영화 동료 배우인 짐 해리스가 병이 나서 그날은 작업을 쉬게 되어 저는 성모님 발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빼곡히 가득 찬 성당 뒤쪽에 서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옆자리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어떤 남자 분이 성모님 발현 시간에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남자가 무수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돌 바닥에 무릎을

꿨고 기도하는구나! 오늘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고, 그분은 주의를 끌어 내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구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 저는 또 하루 쉬게 되었고, 제 아내의 간절한 바람인 이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 발현 중에 저는 이반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은 채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저를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단순했지만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들고 일어났을 때,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 내렸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찾을 시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어떤 사람이 여자 친구를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한 시간을 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꿈도 꾸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갔고, 와인과 음식은 그 특별한 밤처럼 맛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아내를 여러 차례 저에게 묵주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기도를 향해 열렸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일하러 가던 어느 날 아침, 매일 저를 촬영장으로 데려다 주던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묵주기도를 하고 싶소." 놀랍게도 그가 대답

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죠." 제 안에서 느꼈던 그 사랑의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지금 정말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첫 번째로 메주고리에
에 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임스 : 촬영이 끝난 후 몰타에 있을 때 메주고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 제 마음 속에서 '나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사제가 되는 일이다. 왜 하느님께서 네가 배우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배우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부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그때 메주고리에 제게 베들레헴을 연상시켰고,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두 언덕 사이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 발현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에서 지냈던 나흘 간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부터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농구 캠프를 연상케 했습니다. 농구 캠프에 가면 사람들은 하루에 한 게임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단 하루만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늘 읽습니다. 메주고리에 갔을 때, 처음 며칠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후,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나누고 싶은 체험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저는 비슷한 것을 느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제게 주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똑같은 체험이 계속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함께 성사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저희는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가끔 제가 시작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메주고리에 갔을 때, 첫 번째 순례 때와 같은 체험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몇몇 순례자들이 시로키 브리에그에 계시는 요조 신부님을 뵈러 가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 아내 역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조 신부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에 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고, 저는 제 손을 그분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분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고, 저도 그분의 머리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한다." 요조 신부님은 즉각 여자 통역사 쪽으로 몸을 돌려 제가 누구인지, 제가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례를 갔던 것은 우리가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 촬영을 막 마친 다음이었고, 그 당시 저는 그 영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또 그 영화와 메주고리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임스 : 아마 당신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제게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됐을 때, 제 나이는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살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감히 예수님의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곤 했습니다. 이반 드라체비치가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하느님께서 항상 최고인 사람을 선택하지



는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제 마음이 기도하고 성사생활을 하는 데로 열렸기 때문에, 메주고리를 위해 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역을 한 것은 그분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고백성사를 보러 갔고,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멜 깁슨은 라틴어로 미사가 봉헌된다는 조건을 달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변에는 늘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유혹들이 있었고, 그 내적인 전투에서 저는 예컨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는 장면에서 제가 그분께,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엄청난 내적 평화를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찍었고, 그때마다 저는 맨 앞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내리치자, 제 왼쪽 어깨가 탈골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리하고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잃고,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진 채 땅에 엎어졌습니다. 제 얼굴은 먼지투성이의 땅바닥에 부딪쳤고, 코와 입에서는 갑자기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께 하셨던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다시 졌을 때, 저는 어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연기를 멈추었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제 기도에 응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고, 그분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메주고리예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당신을 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영화를 찍는 동안 묵주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영화를 함께 찍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메주고리예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모두 훌륭한 배우들이고, 저희는 그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자신의 삶으로 메주고리예를 살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메주고리예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까? 메주고리예는 제게 성사들을 생활화하고 교회와 일치로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고, 그분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메주고리예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저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인지, 또 우리가 매일 미사에 참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인지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오직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제 안에 현존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장면을 찍을 때, 제 옷 안주머니에는 성인들의 유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현존하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성체 현시를 해 주시도록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인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부님께 간청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카메라맨 옆쪽에서 성체를 들고 서 계셨고, 카메라맨과 함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제 눈 안에 희미한 빛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제 눈에 축성된 성체가 반사되어 그들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형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자리에도 손에 성체를 들고 서 계셨고, 저는 내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라틴어, 아라메아어, 또는 히브리어로 대본을 모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감당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는 동안 제 어깨는 삐어 있었고, 누군가 십자가를 내리칠 때마다 탈골되곤 했습니다. 기둥에 묶여 매 맞는 장면을 찍을 때에는, 채찍으로 두 번이나 몸이 찢겨졌고 제 등에는 14센티미터의 상처가 났습니다. 제 폐에는 물이 찼고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의 8시간이나 걸리는 분장을 위해 몇 달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어려움은 추운 날씨였습니다. 온도가 거의 섭씨 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십자가형 장면을 찍는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의상은 얇은 천으로 된 한 통솔의 옷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장면을 찍고 있을 때, 구름이 매우 낮게 깔려 있었고, 제가 묶여 있는 십자가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제 머리칼이 쭈뼛하게 바짝 선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약 250명 가량의 사람들이 제 몸 전체가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 모두 제 오른쪽과 왼쪽에 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수난'은 사랑의 영화, 아마도 그런 류의 가장 근사한 영화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많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창조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M**

(<http://crownofstars.blogspot.com>에서 발췌 번역)



성체를 몸에 모시고...

장난기 어린 유머를 풍부하게 지니신 앨버트 샤먼(뉴욕 출신)신부님을 뵈는 것은 내게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그분의 탁월한 신학이론과 교회에 대한 깊은 애착은 미국 전역에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날 그는 보도된 메주고리에 발현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확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메주고리예로 직접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던 날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약간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 신부가 병자를 방문할 때처럼 나는 성체를 몸에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이었지만 만에 하나 이곳 발현이 악령들에 의해 온 것이라면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악령과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믿었지요!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방 입구 앞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지키고 있던 프란치스코회 신부님이 나를 보고 손짓하며 부르시더니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지요. 내가 이 특혜를 얻게 된 것도 몸에 모시고 다니는 성체 덕분이라고 여겼어요. 방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벽 쪽으로 밀려나갔지만 방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만족했지요. 곧 이어 슬라브코 신부님이 목격 증인 마리아와 야콥을 데리고 오더니 입구 쪽에서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3단에서 기도가 멈추자 슬라브코 신부님이 방으로 들어와 증인들이 자리 잡을 곳을 정리하더군요. 덕분에 내 앞에 섰던 사람들이 다 비켜서고 나는 마리아 바로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되어 우리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 나는 아무리 무릎을 꿇으려 해보았지만 무릎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한 외중에도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머리를 깊이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 저녁 공동 미사 집전 때에는 무릎을 꿇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둘째 날 밤 나는 성모님의 발현하시는 방 앞에 서서 한 번 더 나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지요. 같은 프란치스코회 신부님이 내게 손짓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예외적인 특별대우를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 내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방안으로 들어섰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지만 이번에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고개만 깊숙이 숙일 따름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체를 몸에 모시고 다니는 덕분에 나는 발현실에 세 번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된 나는 성모님께 그 사연을 여쭙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신빙성을 확신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M**

(메주고리예의 기적 성심의 승리에서)

<http://peace.new21.net>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선주, 강수환, 강영애, 강재식, 강현정, 권금옥, 김건일, 김골롬바, 김단심, 김마테라, 김명생, 김명숙, 김복예, 김시몬, 김안나, 김영서, 김영희, 김원희, 김올리아노, 김정순, 김주희, 김혜정, 김효정, 노마리아, 문방자, 문홍식, 민진아, 민헤레나, 박마티아, 박병칠, 박상만, 박숙진, 박연희, 박영실, 박정미, 박혜선, 박혜영, 백안셀모, 서영순, 서영희, 서애자, 서정열, 성은교, 송원식, 신베드로, 신순덕, 신요한, 신진희, 심세실리아, 안용선, 안준애, 엠토마스, 여애경, 예영숙, 오글로리아, 원명희, 윤경이, 이글라라, 이동우, 리아, 이상순, 이순세, 이순자, 이시훈, 이엘리사벳, 이은경, 이유미, 이영분, 이인숙, 이인순, 이정순, 이정자, 이재현, 이준용, 이진민, 이진수, 이해연, 임동은, 임효경, 장한순, 장레지나, 정영, 정재희, 정지혜, 정홍영, 조안나, 조은자, 지니김, 진도미니카, 천어진, 최동숙, 최상환, 천혜영, 표상순, 한경숙, 허글라라, 허테레사, 홍수원, 홍옥선, 황계자, 익명

Tak Lee, Young Bahn, K. Larcenaite, Cynthia Ziegmann, Agatha Phillips, Yoon Lee, Eileen Cho, Lisa Rigoni, Heary Yerger, Kang Sung, Kyung Han,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발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후원금	\$3,315.00
익명	\$4,000.00
총 후원금 :	\$7,315.00
지출	
지난호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운영비	
총지출액	\$13,079.80
현재 부족금	- \$ 5,764.80



쉽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하지도 선을 행하지도 못할 때,
그런 때는 작은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은 이 세상의 위대한 것보다,
극심한 순교의 고통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따분해 보일 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할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소화데레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21회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대회

2010년 7월 26일 - 8월 8일 (13박 14일)



지도신부 : Fr Joseph Tuscan OFM, (카프친 작은형제회)

순례단장 :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순례경비 : \$3,450 (JFK 공항 출발)

이태리 : 성 바오로 대성당, 성바오로 치명터,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성모마리아 대성당, 순교자들의 무덤 카타콤바,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기념성당과 무덤, 생가성당, 성 글라라 기념성당, 천사들의 모후 성모마리아성당, 포르찌운꼴라, 로레토순례, 성체 성혈 기적의 성당 란치아노, 성 분도성인의 수비아코, 거룩한 동굴 방문,
메주고리에 : 발현산, 십자가산, 청 십자가, 부활청동산, 어머니 마을,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체나콜로공동체, 요조 신부님, 엘비라 수녀님 및 발현 목격증인들과 메주고리에 관련 명사들의 강론과 체험담, St. James 성당의 은혜로운 묵주기도와 미사 및 치유의 저녁 예절, 십자가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기념미사,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안에 있는 성지들과 1700년전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

문의처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PRSRP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